

여성희망캠페인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공업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중심의 탈공업사회로의 구조적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더 이상 남성위주 또는 강자위주의 논리로 총체적인 위기극복은 물론 지구적인 무한경쟁 시대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극명해졌다.

이 시점에 딸들에게 희망세상을 열어주기 위해 태어난 한국여성재단이 특별히 관심하는 바는 오늘의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단절을 풀어내기 위해 대치상황 사이의 벽은 헐고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일이다. 그 일을 선진국에서처럼 필랜스러피(Philanthropy)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필랜스러피란 박애, 자선행위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연구자들에 의하면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 발현으로서의 행위를 뜻하며 서로간의 사회심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극히 자연스러운 상호부조의 기능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자원봉사활동 또는 재단 등의 공익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여성재단과 파트너 단체인 4000여개의 여성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여성재단이 해마다 5월을 <여성희망캠페인>의 달로 정하고 100인 기부 릴레이를 비롯한 집중모금활동도 전개한다. 금년도의 화두는 <여성의 빈곤화 해소>이다. 세상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과 불이익 감수를 강제하던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여성계의 관심사는 경제적 평등으로 승계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성이 빈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21세기가 지향하고 있는 성평등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빈곤문제를 살펴보면 그 원인을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에게 비우호적이며 배제적인 사회안전망제도,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의 적응을 위한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문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남자 230만 원, 여자 120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문에서의 50%의 경제적 차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해체가 심화되면서 여성가장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들 여성가장들은 남성가장들과 마찬가지로 주거, 자녀교육, 의료, 일자리 등의 기초적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남성생계부양자 위주의 노동시장에서 받아야 하는 불이익은 부당하다. 심지어 소득중단시 남성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이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여성의 빈곤은 대물림하게 되어 있다는 데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여성의 빈곤문제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평등의 문제로서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요구하는 사회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유는 여성들이 국가의 복지대상이 되는 ‘수급권 계층’으로 일단 전락하면 빈곤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데에서다. 여성의 빈곤화 해소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여성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함께할 때 성취된다. 재단의 금년도의 5월 캠페인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성들의 경제적 평등을 위한 여성 자신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며 정부에게 촉구하고 여성간의 연대를 통해서 운동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변화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사회에 아직도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은 기부문화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의 내면을 선진사회와 비교하여 들여다보면 불우

이웃을 돕는 일에는 관대하지만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에는 소극적이다. 그 중에서도 여성발전을 위한 기부에는 극히 인색하다. 그것이 내 딸, 내 어머니의 문제인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가항력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밝은 앞날을 예측하게 하고 있어서 희망적이다.

금년도의 재단의 여성희망 캠페인은 다섯 번째로 펼쳐지는 행사이다. 5월 한 달 31일간 100명의 이کم이들에 의해 이어지는 기부릴레이에만도 이미 1만여 명의 주자들이 줄서있는 것은 큰 힘이다. 이들은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돈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같은 일을 권하는 의미 깊은 일로 사회변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암적 요인인 갈등과 단절을 풀어내기 위하여 집단 사이의 벽을 헐고 소통의 다리를 놓는 희망전도사들이다.

여성의 빈곤화 해소의 과제는 단기간에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50여 년간의 세월과 끈질긴 노력을 필요로 했던 호주제 폐지에서의 체험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빈곤화 해소를 위한 여성희망캠페인은 5월 한 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한국여성재단은 캠페인을 위한 열린 창구로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한다.